

社說

87년과 무엇이 다른가

6·10 항쟁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6·10 항쟁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과 각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결정적 반전'을 겪지 않았기에 그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대선에서의 실패로 인해 그 역사적 의의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10 항쟁이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각인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6·10 항쟁은 87년 1월 17일 박종철씨 고문치사가 은폐조작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가 4·3 호헌 조치를 발표해 모든 개헌 논의를 봉쇄하자 6월 10일 고문치사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도화선으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의 폭압을 뚫고 일어나는 민중의 자신감과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권의 항복인 6·29선언을 얻어냈다. 민주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진보정당 등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지난 1월 노동법 개정 반대 투쟁에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매를 맞이하는 지금, 민중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이념과 변함없는 정치권의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조단합을 조장하고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보려는 전근대적 사고,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민을 무시하는 대선자금 관련 대국민 담화 등은 민중의 힘을 무시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당시의 상황과 별다를 바 없지 않은가!

현 정권은 6·10 항쟁 후 정권 교체에 실패한 민중의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된 6·10 항쟁의 수혜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중의 의사를 이룩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민을 배신하여 탄생한 정부가 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겸허한 자세로 민중의 의사를 경청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쌀에는 불순한 의도 없다

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모금일지라도 대북 통로는 대한 적성자로 통폐해야 한다. 모금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법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라. 이것이 정부와 경찰이 최근 재야·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경찰 내사의 근거는 6.25직후에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홍보비, 인건비 등의 모집비용으로 모금액의 2%이내만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법 제9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종교단체를 제외한 한국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재야단체를 수사하고 있으며, 그 중 한총련에 '불순한'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행보가 가지는 저의에 대해 사뭇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현정부에 반하는 사회진보세력인 학생운동과 재야단체는 인도적인 차원의 사업조차도 벌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의도로 운동을 시작한 민주단체들에 '용공'이라는 허명을 씌워 그들을 옥죄겠다는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북한의 기사사태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던 정부가 민간단체로부터 시작된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가.

'살아있었구나!' 이것은 주린 장자를 허기지만 채우며 저단백으로 통통 부어 살길을 찾아 헤메고 있다는 복년사들이 서로 하루의 생존을 확인하는 아침인사다. 지난 시절 '아침 먹었어?'가 우리의 아침인사였던 것처럼, 사위가 몇 뼘 쌀로 인하여 장모를 살해하고, 아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노인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곳,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잇다가 대소환을 넘기지 못하고 수많은 이들이 얼어죽어 가는 곳, 그곳에 한 톨 쌀을 보내자고, 그들도 우리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희곡의 눈초리만을 기부하는 정부와 경찰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강박조류

6월항쟁 이후 한국경제 10년의 평가

경제 민주화, 아직은 제자리 걸음

최근 우리나라는 한보부도나 노동계 파업 등의 상황이 맞물려 심각한 경제불황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불황기에도 지속되어온 정경유착 등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간다. 문민독재 시대라는 말이 나돌고, 김영삼 대통령의 하야설까지 나오는 지금,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하 6월항쟁)의 의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하다.

6월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랜 군사독재에 대항하면서 형성되어 온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원과 구조적 실현이었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과거 군사독재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경제적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한 강권적 경제개입'과 국가주도형 경제정책 하에 형성된 '재벌 중심적인 경제환경' 및 고속성장과 차등 분배에서 오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시정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문제는 최근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민중은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한 반면, 자본축선에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경제민주화의 의미로 이해하려 하였다. 이런 인식의 차이와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1988년말까지의 제4순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제4순환		제5순환		제6순환	
	1986 ~ 1988		1989 ~ 1992		1993 ~ 1996	
특	전업종의 수출증가 →투자확대가 경기를 견인 (경공업 포함)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자산가치 상승, 임금상승 등과 연계된 소비증가 →투자확대가 경기를 견인		경기 견인력의 차별화(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정	국제가격변수가 유리하게 작용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등) →「3저호황」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채의 축소		수출회복세 미약 →경상수지 적자 전환 ·인플레이션 축적으로 경기후퇴시 불황의 골이 심화됨 (불황의 장기화) ·산업구조 조정 본격화 (사양산업의 퇴출 가시화)		경기 견인력의 차별화(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수출회복 →투자확대 과정이 특정업종으로 제한(반도체, 컴퓨터, 철강, 석유화학 등)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문제 재부상 ·산업구조 조정의 한계 노정 →성장잠재력 약화	

▲3차체의 경기순환과 특징

기형적 산업구조가 장기불황 초래
자본독점에 대항할 민주세력 구축해야

의 제5순환 및 1993년부터 최근까지의 제6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3저호황기'라 불리는 제4순환은 '수출증대→투자확대'에 의해 성장이 주도된 시기였고, 제5순환은 제4순환기에 형성된 잉여자금이 부동산이나 각종 금융계에 투자된 시기이며, 투기적 순환의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의 제6순환은 내외경제변화에서의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경제회복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시기이다.

3저호황기를 거친 이후부터는 사회계층 분업관계의 재편 등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구조 조정의 과정은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한계업종의 해외진출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경제문화 개방 및 달러화의 약

세화 등의 원화절상에 의해 드러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문제가 지적되었다. 내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사회적 세력화와 함께 실현된 임금상승에서 비롯된 자본축적환경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자본축적 환경의 악화는 잉여가치 생산조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1차산업 및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며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외관상 보이는 변화가 산업구조조정의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사유재산이 인정되며 기득권은 권력

을 지속하려 하므로 경제민주화엔 어느정도 한계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경제절차와 구성원들 간의 행태 문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했던 부의 집중 완화, 서민계층 보호, 경제절차의 민주화 등이 요구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점재벌의 비대화와 중소기업의 약화, 농업부문의 쇠퇴, 노동권 및 지역간의 불균형, 산업공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노사간 및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음에도 최근 10년간의 경제상황은 마치 거꾸로 치달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1986

년 3저호황 퇴조로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때 3당합당 이후의 보수집권세력은 경제민주화정책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한편 1988년 말부터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4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자본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축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제안정화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 결과 경기는 수직상 회복세를 보이게 되지만 비제조업부문 성장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얼마 안가 제조업부문의 수출부진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1991년 3월 정부는 '제조업경쟁력강화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은 통화 남발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대량생산체제의한계성이 드러나면서 1992년은 어두운 한 해가 되었다.

1992년 출범한 이래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하겠다고 출범을 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어두운 경제현실에서 이젠 과거의 저비용 시대를 향수하는 듯한 시대착오적 말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임금, 고지각, 과소비 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며 임금삭감만을 의도하는 것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민주적 규제, 즉 생산, 투자, 시장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닌 연대세력 조직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노동조합, 자본독점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 신기술에 대한 비판적 기술자 집단, 환경보호조직, 소비자조직, 각종 전문가조직, 비판적 미디어나 정보망 등이 경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노설부)

PC 다시 고개드는 '개고기' 논쟁

통신원

브리지드 바르도는 문화적 상대성 무시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복날이 되면, 혹은 찌는듯이 무더운 날엔 개고기를 먹어 왔다.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체력을 보충하여 온 것이다. 농경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를 잡을 수 없는 노릇이었고, 따라서 동네에 널려있는 똥개들이 몸보신에 가장 안성맞춤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여배우였던 브리지드 바르도는 이런 우리의 문화를 부정하려 한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들은 야만인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다. 최근엔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를 잡는 한국인들의 잔인한 모습'이라며 도전장면이 찍힌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우스꽝스럽게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 사이트가 개설되고 난 후 통신상에선 다시 개고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브리지드 바르도의 입장에 찬성하는 측에선 개는 우리와 친숙한 동물들이므로 먹어선 안된다고 한다. 또한 개를 동물이로 때려잡

는 방법은 너무 잔인하므로 비인간적인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ID:ASH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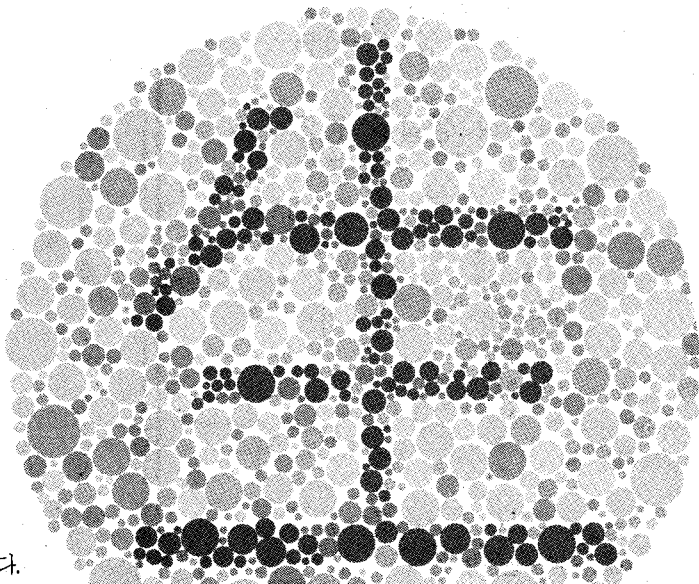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개와 친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구적 사냥문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개에게 온갖 치장을 하고 장난감 다루듯 하는 것이 더욱 비인간적일 수도 있다. 더욱이 산채로 먹는 회나 억지로 살을 찢은 오리의 생간을 먹는 포와그라 등의 요리에 대한 언급없이 개를 먹는 것을 비판해선 안된다고 한다. (ID:K-MHODONG)

개고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호식품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적 상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브리지드 바르도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개에 대한 인식마저도 어느새 서구화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남긴다. (최용섭 기자)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생매?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아직도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미래가 불안한 '생매(生盲)'입니다.



생명보험 TV광고 아이디어 공모

돈든한 미래 준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행복을 위한 필수품!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주십시오.

1. 대상

· 전문대이상의 대학생(광고 동아리), 생명보험업계 종사자(생활설계사/영업소장 등) 및 관심있는 일반인

2. 응모방법

· 광고주제: 위험보장보험 + 연금보험

사고는 타이밍 상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노후는 결코 먼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명보험으로 자신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돈든한 미래준비,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 응모요령: TV광고 아이디어를 콘티 또는 A4지 1매 내외로 정리하여 방문 또는 우편용모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97년 6월 30일(월)까지

· 응모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국동빌딩 16층.

· 수상작 발표: 월간생활(생명보험협회지) '97년 7월호에 발표 및 회원사 홍보부, 대학 학과사무실을 통한 개별 통보.

· 심사: 심사위원은 학계 및 광고계의 권위자로 위촉함.

· 문의: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02)275-6051, 진애드 기획국 (02)514-1002

3. 시상

· 대 상(1점):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5점): 상금 각 30만원

■ '96 생명보험TV-CM 『생명보험 생활』편



오래된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노후는 멀리 않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십시오.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이제 생명보험은 생활입니다.
NA생명보험

※ 제출된 모든 작품은 반환이 불가하며 작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등 저작권은 생명보험협회에 귀속됩니다.
※ 제출시 두축산(산)에 응모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선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모델명과 그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 생명보험협회

대한생명 / 제일생명 / 삼성생명 / 흥국생명 / 교보생명 / 동아생명 / 대신생명 / 태평양생명 / 국민생명 / 한덕생명 / 한국생명 / 신한생명 / 동부생명 / 동양생명 / 코오롱-메트생명 / 고려생명 / 삼성올스타생명 / 영풍메뉴라이프생명 / 고협뉴욕생명 / 한성생명 / 조선생명 / 금호생명 / 중앙생명 / 국제생명 / 두원생명 / BYC생명 / 태양생명 / 한일생명 / 네덜란드생명 / 푸르덴셜생명 / 프랑스생명 / 라이나생명 / 아메리카생명